

美國 地理學에 있어서 地域概念의 發達

柳 濟 憲*

1. 序 論	5. 1950년대
2. 1920년대	6. 1960년대
3. 1930년대	7. 1970년대와 1980년대
4. 1940년대	8. 結 論

1. 序 論

美國의 地域地理學(regional geography)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지리학의 中樞를 이루었다. 地域概念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지리학이 그 인접학문인 地質學, 植物學, 氣象學 등으로부터 구별되는 學問領域으로 독립하는데 필요한 哲學的 基盤을 제공하였다.¹⁾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지역지리학은 지리학의 핵심에서 밀려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觀點이 主觀的이며 記述이 羅列的이고 非科學的인 연구분야라고 淺視받고 있는 實情이다.²⁾ 지역지리학이 지리학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미국의 경향은 아직도 지역지리학이 지리학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엄존하는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³⁾ 美國地理學에서 지역지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든 때는 1960년대초 부터이다. 地域에 관한 概念과 研究方法의 논의는 1950년

대까지만 하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950년대를 고비로 미국에서 지역지리학이 쇠퇴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空間概念에 기초하는 系統地理學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과 그 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本稿는 미국지리학에 있어서 地域概念의 發達過程을 1920년대 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찰함으로써, 미국에서 지역지리학이 쇠퇴하게된 經緯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개념을 各 時期別로 그 특징을 부각시키고 그 이론적인 상호관계를 추적하는 작업을 할 때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에 수록된 美國地理學會의 歷代 會長 演說을 주요한 자료로 삼았다. 왜냐하면, 미국지리학회의 회장 연설은 그 내용이 한 개인의 所見에 그치지 않고 그 당시의 지리학 전반의 흐름을 代辨하는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지역개념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時期인 1920년대와 50년대사이의 *Annals*

* 韓國敎員大學校 第2大學 地理敎育科 助敎授

1) James, P.E., 1972,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 Ideas*, The Bobbs-Merrill Company, New York, pp. 397~99.
 2)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지리교육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지역개념이 가장 상위의 주제로 남아있다. 참조할 문헌은 The Joint 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and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가 1984년에 발행한 보고서인 *Guidelines for Geographic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이다.
 3) Paterson, J.H., 1974, "Writing regional geography: problems and progress," in Christopher Board, et al., eds., *Progress in Geography*, Edward Arnold, London, vol. 6, p. 6.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를 일일이 훑어보며 지역개념의 발달의 初期를 면밀히 분석하였다.⁴⁾

韓國에서는 최근들어 지역지리학이 國土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이 부적 증대되었으나, 韓國實情에 알맞는 지역개념과 지역연구방법이 아직도 활발히 논의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다. 한국에 있어서 지역지리학이 아직 뿌리를 못내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解放 이후의 韓國地理學이 歐美의 지리학과는 달리 지역지리학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간개념에 기초를 두는 계통지리학 혹은 空間地理學으로 직접 移行했기 때문일 것이다.⁵⁾ 구미의 지리학이 제각기 자기 국가의 지리적 특수성에 입각한 지역지리학이 발달한 然後 그 위에 공간지리학이 接木되었는데 반하여, 한국지리학은 지역지리학의 단계를 건너뛰므로 해서 지리학의 발달과정에 있어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지리학계에 國學으로서의 地理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역지리학의 復興을 외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고리”를 찾자는 노력의 一環이라고도 해석된다.⁶⁾

이러한 脈絡에서 미국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이 어떻게 발달하여 왔는가를 분석하는 일은 한국 지리학에 있어서 지역지리학을 어떠한 角度에서 어떠한 方向으로 부흥시켜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美國地理學史를 지역개념의 발달이라는 面에 초점을 모아 檢討하는 일은 어느나라의 지리학보다도 한국 지리학에 있어서 示唆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의 한국지리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미국지리학이었고, 또 이 때가 미국지리학이 자기 나름대로 지역지리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른바 공간지리학의 단계에 進入한 時期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1920년대

미국지리학이 학문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할 때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 사고방식이 이른바 環境決定論이었다. Semple 등의 영향에서 유래된 환경결정론이 지리학이 科學으로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었다. 환경결정론을 지리학의 代名詞인 양 바라보는 지리학 외부의 視覺으로부터 지리학이 벗어나게하려는 미국지리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지역개념이었다. 이에 미국지리학자 중에서 독일어나 불어를 아는 사람들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발달한 지역개념을 일부 수정 혹은 보완하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미국에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Sauer가 당시 관심을 끌던 지역개념을 논문을 통하여 최초로 토의한 미국 지리학자이다. Sauer는 그의 논문 “The Morphology of Landscape (1925)”에서 지역개념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

“...景觀(landscape)은 領域(area)의 개별단위이다. 地理的 領域(geographic area)이란 物質的 存在(corporeal thing)이며 이는 형태면에서 특징지을 수 있고, 구조면에서 인식할 수 있고, 기원·성장·기능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⁷⁾

여기서 Sauer는 지역을 정의함에 있어서 형태를 重視하고, 지역이 本質에 있어서는 生物體(organism)임을 暗示하고 있다고 엿볼 수 있다.

4) 이 작업을 할 때 Dr. George W. Hoffman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Dr. Hoffman은 Michigan 大學에서 1940년대에 대학원 교육을 받은 政治地理學者로서, 지역개념에 관한 논쟁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하였기 때문에, 당시 논쟁에 얽힌 逸話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Dr. Hoffman의 증언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념의 논쟁뒤에 깔려있는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관한 것은 1920년대와 1950년대 사이를 분석할 때 좋은 자료가 되었다.

5) 朴英漢, 1987, “國學으로서의 地理學: 現況과 方法의 模索,” 地理學, 제35호, p. 6.

6) 지역지리학의 부흥을 공개적으로 제창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金相昊, 1983, “地理學의 本質,” 地理學論叢, 第10號, pp. 1~14.

柳佑益,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현대사회, 제 6권 제 4호, 통권 24호, pp. 246~263.

朴英漢, 1987, “國學으로서의 地理學: 現況과 方法의 模索” 地理學, 第10號, pp. 1~14.

7) Sauer, C.O.,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vol. 2, p. 25.

Sauer의 지역개념은 형태를 증시하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Schlüter의 그것을 聯想하게 한다. Sauer가 지역을 생물체로 비견하였음이 그의 한참 뒤의 논문인 “Personality of Mexico(1941)”에서 명백히 立證된다. 이 논문에서 Sauer는 지역연구는 土地와 生活의 측면에서 지구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는 藝術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個性(personality)이라는 용어로 대치하고, 개성을 토지와 생활의 상호간動的 關係의 聯合이라고 규정하였다.⁸⁾ 지역의 특색을 心理學的 用語인 개성으로 비유하는 것은 바로 지역을 생물체로 간주하는 Sauer의 觀點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 “Personality of Mexico(1941)”를 제외하면 1930년대 이후에는 지역개념과 관계된 Sauer의 논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Sauer 자신이 Chicago에서 Berkeley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이내 지역지리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自然과 人間의 相互 關係라는 主題에 초점을 두고 歷史的 接近方法을 주로 適用하는 일종의 系統地理學 쪽으로 나아갔다.⁹⁾ Sauer의 논문인 “The Morphology of Landscape(1925)”는 발표된 이후 Sauer 자신과 그를 追從하는 Berkeley학파의 研究動向에는 별로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Chicago 일원 즉 Midwest의 지리학자들에게는 지리학 연구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Sauer의 논문이 契機가 되어, 지역개념에 대한 논의가 1930년대에 활발해지고 地域研究도 流行하게 되었다.

3. 1930년대

Sauer의 지역개념을 全面的으로 批判하고 나

선 사람이 Hartshorne이다. Hartshorne은 그의 유명한 著書인 “The Nature of Geography (1939)”에서 Sauer가 지역의 형태적 측면을 증시하고 지역을 본질면에서 생물체로 간주하는 태도는 妥當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¹⁰⁾ Hartshorne의 意見에 의하면, 지역이라는 것은 생물체와 같이 실제로 生存하지 않고, 지리학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人爲的인 概念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은 현실세계의 實體가 아니고, 지리학자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Hartshorne은 지역이 생물체가 될 수 없는 주요한 이유로서 지역이 再生産되거나 成長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Hartshorne은 지역을 연구할 때 형태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可視的인 事象(feature) 즉 物質文化만을 다루게 되어 지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¹⁾ 그는 지역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가시적인 事象(feature) 즉 비물질문화도 지역연구의 對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Hartshorne이 Sauer의 지역개념을 비판한 내용 중 Sauer가 가시적인 사상에 너무 置重했다는 부분은 특히 많은 論難을 불러 일으켰다. Sauer를 중심으로 하는 Berkeley學派는 Hartshorne의 이와같은 비판에 대하여 反발을 한 것 같다.

Sauer의 제자인 Kniffen은 뒷날 그의 미국지리학회 회장 연설에서 民家(folk housing)가 미국의 文化地域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가를 誇示함으로써, 가시적인 사상 즉 물질문화를 過小評價하려는 Hartshorne의 태도를 공격했다.¹²⁾ Kniffen의 회장연설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Sauer와 Hartshorne의 두 사람에게서 비롯된 논쟁, 즉 지역연구에 있어서 가시적인 요소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8) Sauer, C.O., 1941, “The personality of Mexico,” *Geographical Review*, vol. 31, p.353.

9) Sauer, C.O., 1941, “Forward to historic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31, pp.1~24. 현재 Berkeley學派임을 자칭하는 지리학자들은 대체로 지리학 이론에 있어서 이 논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10)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 Critical Survey of Current Thought in Light of the Past*,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Lancaster, Pa., pp.254~60.

11) *Ibid.*, pp.157~167.

12) Kniffen, F., 1965, “Folk housing: key to diffus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5, pp.549~77.

見解差는 미국지리학계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다. 이러한 견해차는 또한 미국 지리학이 Berkeley學派와 Midwest學派로 兩分되는 이론적 기반으로서도 작용한 듯 하다. Sauer는 자신이 제시한 지역개념에 잇따라 비생산적인 논쟁이 난무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스스로 지역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에 滯留하는 동안 Hettner의 글을 집중적으로 탐독한 Hartshorne은 Hettner를 따라 지역이라는 개념이 지도상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의 領域的 差異(areal differentiation)를 선택적으로 연구하는데 이용하는 知的 道具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견해는 다시말해서 지역이란 지리학자가 일정한 영역내에서 문제삼고 있는 현상의 종류에 따라 그 관련 主題의 數를 선택적으로 限定시킴에 따라 생겨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영역안에서 지리학 연구의 대상으로 정해지는 주제의 수에 따라 지역의 종류는 單一主題로 구성되는 單一主題地域(single topic region)에서부터 復數主題로 이루어지는 復數主題地域(multiple topic reg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진다는 것이다. Hartshorne은 지역연구에 있어서 최상의 목표는 복수주제 지역을 파악하는데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Hartshorne은 복수주제 지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단일주제별로 지역을 설정한 다음에 이들 단일주제 지역들을 서로 관련시켜 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일주제 지역이 서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일주제 지역의 境界線을 설정한 후 各 單位地域의 境界線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對照해 보라고 하였다. 이때 만일 이들 境界線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복수주제 지역으로 規定짓고, 이들 단일주제들 사이에 존재하는 因果的 相互關係를 밝히는 작업을 하라고 하였다. Hartshorne의 이러한 지역연구방법론은 무엇보다도 지역을 구분하는 境界線을 긋는 능력을 必須條件임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¹³⁾ 그리하여, 나중에는 境界線에 너무 집착하는 Hartshorne의 지역연구방법론이 Hartshorne 스스로 천명한 바대로 복수주제 지역의 이해라는 지역연구의 本然의 任務를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의 境界線을 긋는 副次的인 일에 시간과 정력을 浪費할 素地를 마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지역의 境界線을 설정하는 일을 중요시하는 Hartshorne의 지역연구방법론은 1930년대와 40년대의 미국지리학계 특히 Midwest학파의 지역연구에 널리 採擇되었다. 그러나, 많은 지리학자들이 실제 野外調査를 통하여 지역의 境界線을 긋는 일과 단일주제 지역간의 因果關係를 찾아내는 일에 충실해 보았지만, 복수주제 지역의 이해라는 지역연구의 至上課題에는 接近하지 못하였다. 지역의 境界線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획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단일주제 지역간의 인과관계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드물다는 嚴然한 現實에 맞부딪친 것이다. 결국, Hartshorne은 지역개념을 形而上學的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일에는 공헌했을지 모르나, 실제적인 지역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한 混亂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4. 1940년대

Hartshorne식의 지역개념과 지역연구방법론이 가져온 否定的 效果에 대한 認識이 점점 높아져 가는 가운데, 지역개념을 再定立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제 2차 대전을 전후하여 활발하게 일어났다.¹⁴⁾ 지역개념의 형이상학적 논쟁에서 탈피하여 지역연구 실제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역개념을 技術的으로 改善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미국지리학회에서는 지역개념과 지역연구방법을 토의하기 위한 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947년에 지역개념과 지역연구방법(regional concept and regional method)에 관하여 報告書를 내놓았다.

13) Minshull, R., 1967, *Regional Geography: Theory and Practice*, Hutchinson, London, p.122.

14) Hart, J.F., 1982, "The highest form of the geographer's ar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2, pp.12~3.

Whittlesey는 이 위원회의 대표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지역개념 중 많은 부분이 Whittlesey의 意思가 반영된 것이다.¹⁵⁾

이 보고서를 통하여 Whittlesey는 지역을 단일 주제지역과 복수주제지역으로 나누는 Hartshorne 식의 분류방식에 等質地域(homogeneous region)과 結節地域(nodal region)으로 나누는 방식을 첨가하였다. Whittlesey의 견의에 따르면, 동형 지역이란 일정한 領域안에서 그 내부구조와 조직의 側面에 있어서 同質的인테 비하여, 결절 지역은 초점(focus)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領域으로 구성되는 것이다.¹⁶⁾

지역을 동형지역과 결절지역으로 나누는 Whittlesey의 분류방식은 當時로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 이전부터 미국 지리학계에서는 지역연구의 便誼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어 자체를 공식적으로 命名하거나 學論하지는 않았으나, 형태면과 기능면을 각기 별도로 부각시키는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Jones라는 영국의 지리학자가 1920년대에 等質性(homogeneity)과 機能的 組織(functional organization)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지역개념에 고려해 넣자는 提案을 한 바 있다. 곧이어 미국 지리학자인 Platt는 James의 지역개념 중 동형성을 領域의 靜態的 等質性(static areal homogeneity), 그리고 기능적 조직을 領域의 機能的 單一性(areal functional unity)으로 각각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¹⁷⁾

5. 1950년대

Whittlesey가 제창한 지역개념 중 결절지역은 곧이어 미국 지리학계에 주요한 爭點으로 부각되었다. 미국지리학이 1950년대에 들어와 삼게

된 주요한 關心事는 어떻게 하면 地域의 動態性(dynamism)을 효율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은 財貨와 人口의 移動이 그 어느나라에 비하여 빈번한 미국의 實情을 감안할 때 어쩌면 當然한 歸結인지 모른다. 일단 대다수 지리학자의 관심이 지역의 동태성을 어떻게 잘 규명해 내는가에 집중되자, 기존의 지역개념으로는 지역의 동태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輿論이 높아졌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개념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지역의 동태성을 가장 많이 含蓄하고 있던 Whittlesey의 결절지역에 모아졌다.

James는 1952년에 있었던 미국지리학회 회장 연설을 통하여 종래의 지역개념이 지역의 동태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力不足임을 是認하고 지역의 동태성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새로운 지역개념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¹⁸⁾ James는 종래의 모든 지역개념들을 통틀어 靜態的(static)라고 규정짓고, 이에 대하여 移動의 패턴(pattern)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개념으로서 動態的 地域(kinetic region)이라는 用語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이동의 패턴이란 교통의 흐름 그리고 통근자와 여행자의 이동같은 現象을 가리킨다. James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역개념 즉 동태적 지역(kinetic region)은 이동의 패턴에 근거를 두고 어떠한 특정 시기의 領域 差異(area difference)를 밝혀내는데 유효하다는 것이다.

곧이어, Ullman은 James의 동태적 지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修正 내지 補完하였다. Ullman의 견해에 의하면, 정태적 지역이 여러가지 종류의 縮尺에 따라 토지이용을 地圖化하기 위한 개념인데 대하여, 동태적 지역은 한 영역안에서

15) 참조할 문헌 :

Whittlesey, D., 1954, "The regional concept and regional method," in James and Jones, eds.,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University Press, Syracuse, pp.19~68.

16) *Ibid.*, pp.36~7.

17) Platt, R.S., 1957, "A review of region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47, p.189.

18) James, P.E., 1952, "Toward a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regional concep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42, p.85.

財貨와 사람들의 흐름을 지도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이다.¹⁹⁾ 또한, Ullman은 정태적 지역을 연구할 때는 動的인 空間關係(dynamic spatial relations)의 地域的 展開의 過程 및 類型(regional process-pattern)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로써 Ullman은 空間關係(spatial relations)라는 용어를 公的으로 學論한 최초의 미국 지리학자가 된 셈이다.

Ullman의 지역연구 방법론은 무엇보다도 計量的 技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재래의 것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것이었다. Ullman이 의도하는 바, 동적인 공간관계의 지역적 전개 과정 및 유형을 이해하는 방법은 상품이동의 출발지와 종착지, 재화와 사람들의 이동 및 흐름, 그리고 都市를 에워싸고 있는 背後地域(tributary area)을 계량적으로 地圖化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Whittlesey는 자신이 제안한 結節지역에 대한 批判이 점차 거세어지자, 1947년에 이미 발표한 바 있는 結節지역의 개념을 좀더 가다듬음으로써 뜻 비판을 弱化시키려고 하였다.

“...結節地域의 내부구조는 한개 혹은 그 이상의 초점(focus)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領域(area)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초점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영역은 流通線(circulation line) 즉 사람과 재화의 이동, 通信, 그리고 기타 요소의 이동 등이 結節지역의 제일차적인 屬性을 이룬다. 結節지역의 초점은 대체로 조직의 結節點(node)이나 통신의 중심점, 다시 말해서 都市일 가능성이 크다. 초점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영역을 結束하는 힘은 초점에서 외곽으로 멀어짐에 따라 약해진다. ...”²⁰⁾

이렇게 보완된 結節지역도 마침내는 지역의 동태성을 糾明하는데 미흡하다는 비판을 회색시키지 못하였다. Platt는 Whittlesey의 結節지역의 弱點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파헤쳤다. Platt의 비판에 있어서 주된 내용은 結節지역이 意味하는 바로는 이동의 동태성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그런데, Platt의 관점에 있어서 새로운 점은 그 비판이 幾何學的인 思考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latt의 견해에 따르면, Whittlesey가 定義한 結節點(node)은 기하학적으로 하나의 點이 아니라 面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동을 시작과 끝이 있는 線에 견줄 때 한 개의 點으로 위치하게 되는 結節點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²¹⁾ Platt는 Whittlesey가 정의한 結節點은 넓게 걸쳐 있는 영역(area)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一貫性에 의해 結속되는 하나의 작은 영역(area)이므로 기하학적으로 하나의 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Whittlesey는 結節지역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등 지역지리학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 자극을 받아, Hartshorne식 지역개념의 약점을 보완 내지 수정한 compage 혹은 全體地域(total region)이라는 새로운 지역개념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Whittlesey는 Hartshorne이 언급한 복수 주제지역 가운데 주제가 15개 내지 20개인 것을 특별히 지칭하여 compage 혹은 전체지역(total region)이라고 하였다.²²⁾ 그리고, compage를 구성하는 주제들은 人間의 居住와 기능적으로 관련된 自然 및 社會環境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Whittlesey는 地域(region)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의미로서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학술적으로 엄밀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無理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compage라는 영어의 古語를 復活시켜 지리학에 있어서 전체지역(total region)을 뜻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한편, Whittlesey는 지역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복수주제지역의 이해에 있다는 Hartshorne의 견해에 同意하였으나, Hartshorne의 지역연구 방법론에는 異議를 提起하였다. Hartshorne이 제시한 복수주제지역의 연구방법은 우선 여러가지 단일주제별로 境界線을 그은 다음, 그 결과로 생겨난 여러가지 단일주제지역들을 서로 비

19) Ullman, E.L., 1953, "Human geography and area resear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43, p.190.

20) Whittlesey, D., 1954, *op. cit.*, pp.37~40.

21) Platt, R.S., 1957, *op. cit.*, p.190.

22) Whittlesey, D., 1954, *op. cit.*, pp.21~2.

교 내지 검토하여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因果關係(causal relation)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다시말해서, 복수주제지역이 성립하기 위한 必須條件은 단일주제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정확한 지역의 경계선을 긋는 일과 단일 주제간에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 모두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容易하지 않기 때문에 Hartshorne의 지역연구 방법론은 지역연구 실제의 進展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Hartshorne식 지역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충분히 意識한 Whittlesey는 지역연구에 임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두가지를 認定하고자 하였다.²³⁾ 첫째, 단일주제로 작성된 地圖를 가지고는 지역이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복수주제지역이 성립하기 위해서 모든 주제가 서로 인과적으로 關聯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Whittlesey는 지역이 그 핵심에 있어서 謀種의 同質성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영역(area)이기는 하지만, 그 영역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斷定하였다. 이러한 단정은 Hartshorne의 주장에 따라 종래까지 지역의 경계선을 긋는 일에 沒頭해온 지역지리학의 誤謬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Whittlesey는 복수주제지역이 될 수 있는 條件으로서 인과관계로 엮힌 현상대신에 調和된 現象(accordant phenomena)이 존재할 것을 들었다. 여기서 조화된 현상(accordant phenomena)이란 여러가지 현상들이 하나의 영역(area)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이들 현상이 반드시 인과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James도 이와 유사한 意見을 개진한 바 있다. James에 따르면, 한 영역(area)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서로 인과관계로 엮혀있지 않고 또 이들 현상의 영역이 이루는 경계선들이 서로 一致하는 것이 전혀 偶

然이라 할지라도, 이들 현상이 나타나는 영역은 하나의 지역으로 成立한다고 한다.²⁴⁾ 따라서, 모든 현상의 영역이 우연히 일치하는 지역을 연구하는 일도 엄연히 지역연구로서 정당화되며, 이러한 지역연구 결과로 導出되는 結論도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Hartshorne類의 형이상학적인 지역개념에 좀더 現實性을 부여하여 지역지리학을 본 軌道에 올려 놓으려는 Whittlesey의 노력은, 자기 스스로가 실제적인 지역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Whittlesey는 자신의 새로운 지역개념인 compage를 아프리카의 로데시아(Rhodesia) 南部에 적용하여 보았으나, 전체지역의 이해라는 목표를 완전히 달성해 내지 못하였다.²⁵⁾ Compage라는 개념을 미국도 아닌 아프리카의 실제 지역연구에서 具現해 내지 못한 것은 지역개념이 美國의 現實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없다는 비판이 盛行하던 時代的 背景을 감안할 때 더욱더 부조리한 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Whittlesey의 諸般 지역개념에 대해서 始終一貫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온 Platt는 compage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역시 懷疑的이었다. Platt는 compage가 개념상 科學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缺陷으로 지적하였다. Platt의 태도는 어느면에서는 冷笑的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는 불란서 지리학자인 Gottman의 美國 Virginia에 대한 연구가 Whittlesey의 아프리카 로데시아 남부에 관한 연구보다 compage의 개념을 더 잘 구현해 냈다고 諷刺할 정도였다.²⁶⁾

한편, 동태성, 지역의 경계선, 그리고 현상간의 인과관계 등 이외에도 地域의 規模(scale)가 지역개념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검토되었다. 原則論적으로 말해서,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지역연구에서 취급할 현상 및 자료의 종류와 내용 뿐만 아니라 地域의 特色을 일반화하는 정도도 달라져야 한다.

23) *Ibid.*, pp. 21~2.

24) James, P.E., 1952, *op. cit.*, p. 108.

25) Whittlesey, D., 1956, "Southern Rhodesia-An African compag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46, pp. 1~97.

26) Platt, R.S., 1957, *op. cit.*, p. 189.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의 미국지리학은 一般化의水準에 따라 여러가지 규모의 지역을 골고루 다루기보다는 小規模地域(micro-region)을 偏向的으로 연구하였다. 대다수 미국지리학자들이 지역연구의 대상으로 소규모지역(micro-region)을 유별나게 選好한 動機는, 大規模地域(macro-region)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연구주제가 모호하고 그 연구결과도 명료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不滿에서 비롯되었다.²⁷⁾ 이와같이, 지역연구가 소규모 지역에 偏重된 것이 미국의 지역지리학이 균형있고 건전하게 발달하지 못한 또하나의 原因이 되었음은 不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역연구가 소규모 지역을 單位로 하여 행하여지면, 현상 자체는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過程(process)을 규명해 내는 데는 有利할지 모르나, 다른 지역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廣義의 개념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지역지리학의 연구가 소규모 지역에 치우쳐 왔다고 인식한 James는 1952년에 있었던 미국지리학회 회장연설에서 中規模地域(intermediate-region)을 좀더 활발하게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James의 의견에 따르면, 중규모 지역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人間居住(human occupance)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地誌的(chorographic)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신속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⁸⁾ Whittlesey도 지역연구에 있어서 일반화의 정도에 따라 지역규모의 階層을 구분지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는 지역규모의 계층을 大小順으로 하여 realm, province, district, 그리고 locality 등으로 分類한 바 있다.²⁹⁾

여기서, 지역개념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던 1950년대를 요약하여보면, 1950년대는 Hartshorne, Whittlesey 그리고 James 등에 의

해 代辨되는 전통적인 지리학이 Platt와 Ullman 등이 이끄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지리학으로부터 세찬 도전을 받으며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奮闘하였던 時期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의 위치를 보전하려는 운동은 process-pattern(지역적 전개 및 유형)의 計量的分析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새로운 勢力에 밀려서 마침내는 그 效力을 喪失하여 간 것 같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 해 주는 하나의 證標로서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의 代父라고 할 수 있는 Hartshorne 자신의 心境吐露이다. Hartshorne은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이 系統地理學으로 대체되어 가는데 대한 충격을 1959년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道具로써 지역개념을 정립하고자 한 노력이 결국에는 영똥하게 主題研究(topical studies)의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은 歷史的 矛盾(historical paradox)이다.”³⁰⁾

여기서 주제연구는 계통지리학을 가리키며, 곧 Ullman 등이 提唱한 공간관계의 계량적 연구를 암시한다.

6. 1960년대

종래의 지역개념으로는 地域의 動態性を 설명해 내기 어렵다는 비판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거세어졌다. 이른바 計量革命論者(quantitative revolutionist)들은 이러한 비판이 기세를 한층 더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실로 지역개념에 대한 계량혁명론자들의 견해는 보다 더 否定的이었다. 이들의 견해는 지역지리학의 틀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 論理整然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Platt와 Ullman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

27) Finch, V.C., 1939, "Geographical science and social philoso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29, p. 5.

28) James, P.E., 1952, *op. cit.*, p. 99.

29) Whittlesey, D., 1956, *op. cit.*, p. 3.

30) Hartshorne, R., 1959,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phy*, Rand McNally & Company, Chicago, pp. 136~40.

년대까지만 해도 기존의 지역개념이 그 적용 가능성을 前提로 하여 수정 내지 보완하려는 態度를 취했었다. 이에 반하여, 1960년대의 계량혁명론자들은 지역개념의 수정 내지 보완을 포기한 채 자신들이 추구하는 공간관계의 계량적 연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지역개념을 이용하는 立場을 택하였다.

Berry는 공간관계의 계량적 연구에 대한 當爲性を 合理化하는데 있어서 지역개념을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을 1964년에 성공시켰다. 이 작업을 통하여 Berry는 공간관계의 계량적 연구를 중시한 Ullman式 思考의 命脈을 잇고자 하였다. Berry의 評價에 따르면, Ullman의 site와 situation에 관한 二元的 思考가 人文地理學의 發展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그는 나아가 Ullman의 논문 “Geography as Spatial Interaction”을 공간관계를 系統的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획기적인 논문이라고 칭찬하였다.³¹⁾ 마치 계량적 분석이 지역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는 Ullman의 命題를 증명이라도 해 보이려는 듯이, Berry는 공간관계의 계량적 연구의 당위성을 합리화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Berry는 數學으로부터 行列의 개념을 빌려와서 “地理的 行列(geographic matrix)”이라는 틀을 만든 다음, 이 틀에다 종래 통용되어 온 諸般 지역개념을 일대일로 對應시켜 보았다. Berry는 地理的 事實(geographic facts), 地域, 그리고 立地(location) 등의 개념들을 지리적 행렬을 구성하는 行(row), 列(column), 그리고 細胞(cell) 등에 각기 알맞게 일치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던 것이다. Berry가 고안한 지리적 행렬을 그의 표현을 빌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행(row) 전체는 한개의 지리적 사실(geographic fact), 그리고 하나의 열(column) 전체는 한개의 지역을 대신한다.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에 의해 지정되어지는 한 세포(cell)는 한개의 지리

적 사실을 나타내는 한개의 입지(location)가 된다. Hartshorne이 얘기하는 지역의 특색(regional character)도 한개의 열에 존재하는 모든 행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제에 불과하다. 하나의 열 전부와 또 다른 하나의 열 전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 지리적 사실의 영역적 차이(areal differentiation)라고 할 수 있다. Hartshorne의 정의대로 지역지리학이 지리적 사실의 영역적 차이(areal differentiation)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때, 지역지리학은 지리적 행렬에 있어서 하나의 열전부와 또다른 하나의 열전부를 비교하는 분야라고 환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면, 공간관계 등과 같은 주제를 전적으로 연구하는 계통지리학은 하나의 행 전부와 또 다른 행 전부를 대조하는 분야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³²⁾

위와 같은 Berry의 광범위한 해석은 한마디로 지역개념을 지리적 행렬로 置換해버린 것으로서, 지역지리학을 計量革命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Berry가 지역개념을 計量的인 用語로 완벽하게 설명해 낸 후에는, 미국지리학자들 대부분은 공간관계의 계량적 연구가 전통적인 지리학의 틀에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地域科學(regional science)은 지리학 밖의 분야로서 지역개념을 계량화하는 움직임에 加勢하였다. 지역과학은 1954년 미국의 經濟學者 Isard의 主導아래 일종의 學際的 分野로서 탄생하였다.³³⁾ 지역과학은 그 후 어떤 특정지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意思決定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내 혹은 지역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지역과학은 연구경향이 問題指向的이고 未來指向的이며, 그리고 동시에 연구내용도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리학에 계량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즈음 지역과학도 마침 전세계적으로 脚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Isard가 개발한 계

31) Berry, B.L., 1964, “Approaches to regional analysi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4, p. 3.

32) *Ibid.*, p. 8.

33) James, P.E., 1952, *op. cit.*, p. 523.

량적인 지역개념을 지리학 연구에 導入하는 지리학자들이 적지 않았다.³⁴⁾

이무렵, 지역개념이 계량화되어가는 경향을 正面으로 拒否하는 反論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지리학자는 극히 드물었다. 1950년대까지 지역개념의 논의에 활발히 參與하던 既成 지리학자들조차 대부분 침묵하였다. McDonald는 비록 新進이지만 과감히 나서서 계량혁명론자들이나 지역과학자들이 지리학 고유의 지역개념을 歪曲하여 解釋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McDonald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올바르게 못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계량기법을 사용하는 지리학자들 사이에 마치 유행병과 같이 만연되어 있다고 개탄해하지 않았다.³⁵⁾ McDonald는 Isard의 지역개념이 지리학 고유의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예를들면, Isard는 지역간 흐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Iowa州를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하는 근거에 대해 통계자료를 구할수 있는 單位가 州 일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辨明하였다. McDonald의 견해에 의하면, 자료의 편성 단위를 근거로 해서 지역개념이 정당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McDonald가 지역개념의 계량화와 관련된 認識錯誤를 예리하게 지적한 것은 훌륭하지만, 한가지 哀惜한 일은 McDonald 스스로가 지향하는 지리학 고유의 지역개념을 실제 지역연구를 통하여 구현해 내지 못한 것이다.

지역개념이 계량화로 치닫는 와중에서, 종래의 지역개념을 지역연구의 실제에 효율적으로 적용해 낸 지리학자로서 평가받는 이가 Meinig이다. Meinig는 그의 논문 "The Mormon Culture Region(1965)"에서 계량기법 대신 歷史的 接近方法을 구사하여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이른바 지역지리학의 목적을 달성하였다.³⁶⁾ Meinig는 Mormon地域을 core area, domain, 그리고 sphere 등의 세가지 領域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 세가지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動的相互關係를 찾아냈다. Meinig는 Mormon 지역을 상업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絶對지역이라고 특징지었다. Meinig의 Mormon지역 묘사는 現地 住民들조차도 깜짝 놀랄정도로 정확하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Meinig가 Mormon 지역에 오래 살았던 것 같은 推測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생생하였다. 지리학 고유의 지역개념을 지역연구에 실제로 적용하는데 성공한 Meinig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示唆되는 바가 있다. 첫째, Meinig는 형이상학적 지역개념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現地調査를 토대로 연구지역의 特性에 알맞도록 지역개념을 融通성 있게 적용하였다. 둘째, Meinig가 選擇한 지역의 규모(scale)가 대규모(macro-scale)에 가까운 관계로, 지역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이 수월하였다. 셋째, 지역연구의 접근방법이 계량적 내지 기능적이기 보다는 歷史的 내지 文學的이다.

7. 1970년대와 1980년대

지역지리학이 계량혁명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갔던 1960년대가 지난 후에야 지역지리학을 再照明하려는 노력들이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表面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역지리학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企圖는 지역개념이 그 本質에 있어서 계량화될 수 없다는 인식에 定礎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좀더 부연하면 지역지리학은 계통지리학과 비교해 볼 때, 내용면에서 보다 質的(qualitative)이고 文學的이며, 성격면에서 보다 學術的이기 때문에, 관점면에서 主觀性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지역지리학이 계통지리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는 지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지리학의 主題內容이 사회과학보다는 인문

34) McDonald, J.R., 1966, "The region: its conception, design, and limit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6, p.518.

35) *Ibid.*, p.518.

36) Meinig, D.W., 1965, "The mormon culture region: strategies and patterns in the geography of the American west, 1847~1964,"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5, pp. 191~220,

과학 특히 역사학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지리학이 사회과학방법론을 援用하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지역지리학 고유의 목적이나 장점을 더욱 상실하고 만다고 한다.³⁷⁾

여기서 特記할만한 사실은, 1970년대 이후 지역지리학으로부터 計量化的 부담을 덜어주자는 운동에 앞장서는 지리학자들은 공교롭게도 이른바 觀念論者(idealist)들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관념론자인 Guelke는 Hartshorne이 지역개념을 고려할 때 時間概念을 과소평가하고 機能的關係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미국에 있어서 지역지리학의 방향을 잘못 이끌었다고 비판하였다.³⁸⁾ Guelke는 미국지리학이 계량화의 일변도로 치닫게 된 원인도 다름이 아닌 Hartshorne이 考案해 낸 지역지리학의 기본 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Guelke의 결론에 따르면, 지역지리학이 자기의 바른 위치를 다시 찾으려면, 시간개념과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思考方式 내지 價値觀을 보다 유효적절하게 配合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파라다임(paradigm)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³⁹⁾

Hart는 1982년에 있었던 미국지리학회 회장연설에서 지역지리학의 復興을 부르짖었다. Hart는 관념론자는 아니지만, Guelke 등과 같은 관념론자들의 입장에 상당히 同意하고 있는 듯하다.⁴⁰⁾ Hart는 Guelke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여 지역을 이해하려면 그 地域 住民의 행동을 誘發하는 動機나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Hart는 住民의 가치관중에서 중요하면서도 대단히 微妙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場所에 대한 住民의 感情(feeling)임을 되새겼다. 물론, 지역지리학의 부흥을 위한 Hart의 의침은 지금까지도 지역개념이 科學的 思考를 저해하는 부질없는 논쟁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뿌리깊은 미국 지리학계에서 별로 많은 好應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8. 結 論

미국지리학을 지역지리학에 초점을 맞추어 各年代別로 훑어본 바에 의하면, 미국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은 論理的 一貫性이 결여된채 발달하여 온 것 같다. 지역개념이 각 연대별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실제연구에도 꾸준히 적용되거나 검토되어 온 과정은 인정하지만, 제대로 定立된 지역개념이 없는 실정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한 연대에 등장한 지역개념들이 다음 연대에 가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혀 새로운 지역개념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결과, 이제와서는 지역연구의 실제에 널리 쓰이고 있는 지역개념을 예로 들어 보려면 그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미국지리학계에서 그동안 지역지리학자임을 스스로 표방해 온 사람치고 그의 연구업적을 가지고 지금도 높이 평가받는 이는 아마도 James 정도나 겨우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념이 이와같이 일정한 求心點이 없이 散漫하게 발달해 온 원인을 추정해 볼 때 念頭에 두어야 할 사항은 지역개념이란 다른 학문분야의 이론들에 비하여 보다 많은 經驗的인 地域 研究를 통하여 부단히 시험 내지 검토되는 가운데 정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미국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이 산만하게 발달해 온 原因을 크게 두 갈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하나의 원인은, 지역개념의 논의가 그 初期段階에 있어서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치우쳐 지역개념을 지역연구의 실제에 적용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행해진 지역연구에 있어서도 지역구분을 위하여 지역의 경계선을 긋는 일과 현상간의 기능적 관계 내지 인과관계를 찾는 일에 너무 沒頭한 나머지, 더 중요하다고 할 지역의 규모와 시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지역의 모든 현상을 일반화 할

37) Paterson, J.H., 1974, *op. cit.*, p. 23.

38) Guelke, L., 1977,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vol. 29, pp. 3~4.

39) *Ibid.*, pp. 3~4.

40) Hart, J.F., 1982, *op. cit.*, p. 25.

때에 직면해야 할 문제가 바로 지역의 규모와 시간의 길이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개념이 뿌리를 못내리고 있던 터에 미국지리학은 지역개념의 본질과 거리가 먼 계량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 다른 원인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처한 특수한 地理的 狀況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지역개념이 경험적인 지역연구를 통해서 정립된다는 命題를 뒤집어 생각하면 각 국가의 지리학에서 발달되어온 지역개념은 그 국가가 제각기 지닌 地理的 狀況을 반영한다는 말이 된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내부적으로 볼 때 각 지방의 定住歷史가 짧은 편이고 人口의 流動性도 큰 편이기 때문에, 住民이 자기고장에 대하여 가지는 歸屬感 내지 愛着心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적다. 이러한 美國人의 心理的 屬性이 지역개념을 고려할 때 지역의 규모와 시간의 길이라는 문제를 等閑視 하는 미국 지리학자들의 태도를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잃어버린 고리”로서의 지역지리학, 더 나아가서는 國學으로서의 地理學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 지역지리학의 부흥이 시급히 요청되는 한국지리학의 입장로서는 지역지리학이 쇠퇴를 거듭해 온 미국지리학으로부터 어떠한 教訓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本稿에서 지역개념의 발달과정을 각 연대별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지리학에 관한 한국지리학은 미국지리학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그럴 때, 한국에 있어서 지역지리학의 向後 發達方向에 도움이 될만한 다음 몇가지의 교훈이 비로소 떠오른다. 첫째, 지역개념의 계량화에 慎重을 기해야 한다. 둘째, 지역개념을 정립시키는 길은 卓上討論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經驗主義에 입각한 野外調査도 중요하다. 셋째, 야외조사를 행할 때 특히 留意해야 할 사항은 追求하는 일반화의 정도에 따라 지역의 규모와 시간의 길이를 선택하는 基準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ncept in American Geography

Summary;

Je-Hun Ryu*

In the 1920s and 30s, regional geography occupied the core of American Geography. Regional concept provided a philosophical background for American Geography to be independent from other disciplines such as geology, botany, and meteorology. Today, regional geography in American Geography is far from being considered to be the essence of the discipline. Regional geography is even often despised as a subjective and descriptive type of study of minor importance to the field. Such a degraded status of regional geography within the field is a phenomenon peculiar to American Geography. In German and French Geography, regional geography still holds the strong tradi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ncept in American Geography from the 1920s. This historical analysis of regional concept focuses on contrasting regional concepts in chronological order which is purely arbitrary. The literatures cited in the presidential addresses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nd the addresses themselves serve as main references for the chronological examination of regional concept in American Geography.

In Korean Geography, regional concept has never been fully discussed or developed in light of field work. Recently, the awareness about

the value of regional geography as Korean Studies has been growing among Korean Geographers. In their view, regional geography ought to be the one of the important fields of Korean Studies.

Korean Geography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American Geography since the 1960s. Therefore,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ncept in American Geography would yield some valuable lessons concerning how Korean Geography should promote or at least revive regional geography.

It was found that regional geography in American Geography began to retreat from its primary position in the 1960s. Until then, a wealth of theory about regions was proposed and discussed. Since the 1960s very few regional monographs, notwithstanding the regional concept, have been written. Moreover, During the entire period, between the 1920s and the 1980s, regional concepts have been squabbled without major coherence. Very few eminent regional geographer are now esteemed as a model of field. The innovation of a regional concept is hardly linked to the criticism of a former regional concept. Nor is there a clear distinction on different concepts of region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Still, much remains to be done in the evaluation as well as in the experimentation of various kinds of regions. In short,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345-358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gional concept in American Geography has developed in dispersion, so that there appear no major consensus on the content and nature of regional concept.

One of the causes for the diffuse development of regional concept in American Geography lies in the on-going negligence of the problems concerned with regional-scale and time-length. American Geographers were too much preoccupied with the making of boundary and the discovery of functional or causal relations among phenomena in an area.

The other cause can be foun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Relatively speaking, the United States had a unique geographical condition of a short settlement history and high residential

mobility of people. This uniqueness of geographic condition might have fermented American Geographers' common attitudes of slighting the problems with regional-scale and time-length.

Three major lessons for Korean Geography arise largely from this historical analysis of regional concept in American Geography. First, Korean Geographers should be prudent in the quantification of regional concept. Second, field works should be pursued with the frequency no less than indoor discussions. Third, in the field work, various kinds of regional-scale and time-length should be adequately determined depending on the level of generalization to pursue.